

코로나 19 재난과 한국적 자신학화

김홍주 목사 (온누리 2000 선교본부장)

들어가는 말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충격이 단시간에 전 세계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견된 국가는 총 214 개국이다. 이는 불과 7 개월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 모든 국가로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인류역사상 단일 재난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었다. 코로나 19 재난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쩌면 이번 재난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계질서를 재편하거나 문명사적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번 재난은 한국교회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번 재난을 맞아 두가지 점에서 깊은 신학적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는 이번 재난방역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사회 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이다. 과거에도 한국교회가 사회 내 공공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주변화 되는 조짐들은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재난방역과정에서 기독교는 단순히 사회로부터 고립을 넘어 위험한 존재로까지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책임하게 전염병을 퍼뜨리는 반사회적이고 위험한 집단으로 인식된 것이다. 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교회의 소그룹모임을 금지했을 때 기독교계는 형평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미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어 있어서인지 별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두 번째 이번 코로나 19 재난이 우리에게 성찰케 해준 부분은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를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자각이다. 한국사회에 서구나 미국은 항상 우리가 배우고 모방하고 따라가야 할 역할모델이었다. 특별히 미국은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화기 초기부터 고종과 조선정부는 “미국을 공평무사한 최고 강대국으로 바라 보았고”, “사람들의 품성이 관후하며 인심도 가장 순실하다고 믿었다”고 한다(류대영 2004:71). 더구나 선교사들의

인도주의적 행동은 미국을 다른 서구 제국주의 열강과 구별시켜 주었다. 이후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공산주의를 막아주고 산업화와 근대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에 한국교회는 미국교회를 배우고 모방하는 일에 큰 거부감이 없었고 미국교회와 신학을 교과서처럼 따랐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19 재난 방역과정에서 유럽과 미국조차 우왕좌왕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K-방역을 지켜세우고 배우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스스로도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이러한 현상은 신학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 표준을 만들어 갈 때가 되었다는 의미일지 모른다. 무섭게 변화하는 시대에 더 이상 서구교회가 우리에게 잘 정리된 정답을 제시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현실을 해석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할 때가 되어 보인다.

자신학화의 필요성

새로운 상황은 항상 그 상황을 해석하고 설명해 줄 새로운 신학을 요구한다. 기존의 신학이 지금 한국사회속에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과 역할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질문해야 하고 새로운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함이란 새로운 상황속에서 성령의 조명과 인도속에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장동민 2019:324).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거대한 변화의 흐름속에 성경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신학을 정립해야 할 때이다(폴 히버트 2018: 274).

자신학화(self-theologizing)라는 용어는 폴히버트가 선교지 상황에서 신생교회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폴 히버트 2018: 271). 교회가 새롭게 발전시킨 모든 신학은 특정한 문화와 역사적인 상황속에서 형성된 상황적이고 지역적인 신학이다. 어떤 신학도 모든 질문에 대해 모든 답을 제시할 수 없다. 그렇기에 각 교회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경으로 돌아가 답을 찾는 신학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교회 역사를 볼 때 성령은 각 문화와 역사의 전환점마다 그 시대에 합당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기독교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상황을 살아내야 할지 알려주셨다(장동민 2019:357). 물론 이 말이

글로벌교회와의 신학적인 교류나 대화를 배제하거나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대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조는 될 수 있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우리 상황에 적실성 있는 신학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해답을 찾아내는 자생적 신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 진단하기

한때 전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세계교회의 총아처럼 여겨지던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을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대응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것만이 이런 반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이다. 일부 교회가 문제가 되긴 했지만 많은 교회는 처음부터 어느 집단보다 안전과 방역지침을 성실히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드러난 정부나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이미 그 이전에 내재되어 있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겉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런 궁금증에 대한 실마리를 최근 장동민 교수가 내놓은 주장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한국교회문제의 핵심을 “한국교회가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크리스텐덤적 사고와 방식으로 크리스텐덤 교회의 형태를 지향하고 행동하기때문”이라고 진단한다(장동민 2019: 363). 그에 따르면 “서구 크리스텐덤 사회는 교회가 세상의 모든 삶의 중심에 서서 간섭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 한 사회였다”고 한다(장동민 2019: 381). 그리고 한국사회도 해방 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 반공과 산업화의 필요성때문에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그리고 박정희정부까지 유사 크리스텐덤적 제도와 특권들을 기독교에 부여했기에 아직 이런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쟁에서 우리를 구해준 은인이요 혈맹일 뿐 아니라 산업화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 모델이었고 교회가 미국문화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통로 역할을 했었다(장동민 2019: 171). 따라서 그 당시에는 서구에서 이식된 크리스텐덤적 교회형태와 태도를 가지고도 그 시기의 친미·반공·산업화라는 의제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엔 한국사회도 이미 크리스텐덤이 해체된 서구사회처럼 서구문명과 기독교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기독교는 민주화라는 그 당시 한국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하면서 공적영역에서 급속하게 후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장동민 2019: 178). 그런데 아직도 한국교회는 과거 서구에서 이식받은 크리스텐덤적 교회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장동민 교수가 미국사회를 크리스텐덤 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19 세기와 20 세기 초 미국은 유럽의 국가교회형태를 벗어 버리고 정교분리원칙을 천명했던 국가이긴 했지만 오히려 정교분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교회의 전통과 부흥주의, 그리고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던 유사 크리스텐덤 사회였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미국식 기독교를 한국교회가 교과서처럼 모방하고 따르고,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사회는 이미 다원화되고 세속화된 사회에 진입했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몸에 맞지 않는 과거 크리스텐덤적 사고와 언어, 그리고 신학으로 일반 공공영역을 대하니 기독교가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적실성 없는 모습으로 비쳐지게 된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고통스럽더라도 새로운 상황과 시대에 맞게 체질개선을 해야 할 때이다. 다행스럽게 개신교는 오직 성경의 권위를 의지해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자신을 스스로 혁신하고 적응시킬 수 있는 특성과 생명력을 가진 종교이다. 앨리스터 맥그래스는 이러한 개신교의 상황적응 능력과 특성을 '성경에 누구나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민주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한다. 오늘날 남반구에서의 폭발적인 개신교의 확장도 이러한 특성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앨리스터 맥그래스 2009: 14,746). 그렇다면 한국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적실성 있는 신학을 개발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한국교회가 새로운 활력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 19 재난상황으로 야기된 신학적 주제들

1) 교회의 선교적 본질 회복

코로나 19 재난상황은 교회가 주일 하루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던 건물중심의 교회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해왔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일요일 오전 대 예배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모이는 가'로 교회 사역의 성공여부를 평가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날 모일수 없게 되자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많은 교회가 주일예배를 온라인예배로 전환해야 했고,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해도 방역 수칙에 따라 아주 소수만이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당분간은 예전처럼 많은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많은 신학적인 질문들을 야기한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가?' '온라인 성찬도 가능한가?', '평일 중 하루를 주일로 대체할 수 있는가?'등등.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과연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건물에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아니면 초대교회처럼 역동적인 제자공동체이자 선교공동체인가? 선교적 교회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징이자 도구로서의 모임'인가? 어쨌든 분명한 점은 교회가 당분간 건물과 주일예배 중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아닌 '흩어지는 교회',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회'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사실 코로나 19 재난 이전에도 한국사회에서 건물 중심의 교회론은 이미 도전을 받아왔다. 많은 교회들이 과거의 성공방식을 따라 무리하게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는 과거처럼 교회 건물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를 고민해 봐야 한다. 마치 예수님이 성전이나 회당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기보다 목자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긍휼이 여겨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죄인들과 세리, 병자와 이방인 등을 만나고 섬겼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흩어지는 교회',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회'로의 변신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눅 8:1;막 1:39, 6:6 등).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다행히 20 세기 세계신학계가 고민했던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 하나가 '교회와 선교의 관계'문제였다. 칼 바르트나 레슬리 뉴비긴 등의 영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적인 본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이 조명되었고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물이자 도구로서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파송된 선교적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크레이그 밴 켈더 2015: 49). 물론 이러한 선교적 교회론(Mission ecclesiology)도 서구의 포스트크리스텐덤 상황속에서 발생한 지역신학이라 할 수 있기에 비판적 평가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이미 유사 크리스텐덤시대를 경험하긴 했지만 애초에 한국교회는 다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 속에서 소수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선교적 교회론자들과 대화할 주제가 많다고 여겨진다.

한국교회는 지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앞서 언급한 건물과 성장 중심 사역의 폐해, 교회 세습, 교단의 관료화, 신학교 난립으로 인한 목회자 공급과잉과 공신력 하락, 이단의 도전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19 재난상황속에 드러난 더 심각한 문제는 세상과의 소통능력상실이다. 지금의 틀로는 교회안의 복음의 좋은 소식이 전혀 세상에 좋은 소식으로 소통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성찰하고 정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크레이그 밴 켈더가 이야기한 대로 교회의 본질이 제대로 정의되어야 건강한 교회의 사역과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크레이그 밴 켈더 2015: 61). 이번 코로나 19 재난의 충격이 한국교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옛 가족을 터뜨리고 복음의 생명을 새로운 가족에 담는 계기 말이다.

2)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

이번 코로나 19 재난으로 한국식 방역이 전세계에 화제가 되었다. 서구의 일부 비평가들은 한국식 방역이 사생활과 인권침해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한국이 성공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는 듯 하다. 다만 일부 서구의 비판은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 사이의 시각 차를 드러내는 문제인 듯 하다. 사실 필자는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전염의 위험에도 한사코 마스크 쓰기를

거부했던 유럽과 미국인의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서구의 개인주의의 문화의 폐해로 여겨졌다.

리처드 리스벳에 의하면 서구문화의 기반은 그리스철학인데 이들은 사물을 주변환경과 분리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로 본다고 한다. 그렇기에 인간에 대해서도 어릴 때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키워주는데 교육의 중점을 둔다. 반면에 동양은 관계를 중요시한다. 끊임없이 자기수양을 통해 가족과 마을 사람들과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이루고 통치자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교육받는다(리처드 리스벳 2002:62-72). 사실 한국은 이러한 유교적 가치가 국가적 이념으로 채택되어 500 여년동안 삶의 구석구석까지 내면화된 나라라 할 수 있다. 즉 유교적 가족주의 집단문화가 가장 철저하게 실험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최준식 1997:46-54).

그런데 한국교회안에는 이러한 유교적 집단주의 문화와 서구식 개인주의문화가 묘하게 혼합되어 있다. 목회자는 군사부일체라는 유교적 이념의 영향때문인지 아버지이자 스승,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는다. 그러다 보니 리더십도 집단주의문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권위주의와 서열주의, 온정주의와 체면문화등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신앙은 초월적이고 개인주의적이다. 아마도 일제시대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정교분리를 내세워 서구의 부흥주의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신앙을 전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체험을 강조하는 서구의 경건주의와 부흥주의, 그리고 오순절주의의 경향은 무속에 깊이 뿌린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과 잘 맞아 떨어졌다. 덕분에 한국교회는 각종 부흥회와 기도원 운동, 오순절주의와 성령운동을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었는데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인 역사의식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적이고 건강한 공동체의식이 부족하다.

성경은 공동체성과 개인의 가치를 동시에 강조한다. '각 개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신칭의 교리나,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나라를 볼 수 없다'는 중생의 교리는 하나님이 각 개인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본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한다. 결국 교회의 선교적 책임이라는 것도 완전한 사랑과 조화로운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회적 사랑의 존재양식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책임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번 기회에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조화롭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성경적 공동체신학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무심코 한국교회가 모방해온 서구신학이 철저한 개인주의로 기울어진 신학이었다면 동양의 관계중심의 문화속에 살아온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한국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구의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역사까지 고려하는 방대한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 일인가구가 늘고 혼밥, 혼술족이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 19 재난상황으로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한국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와 성경의 살아있는 공동체성으로 이들을 품을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회의 공공성 회복

20 세기 복음주의 기독교가 고민해 온 주제 중 하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였다. 이러한 논의는 본래 선교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지만,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던 서구세계도 다원화되었고, 기독교는 더 이상 공공영역에서 주류가 아니다. 이번 재난상황에서 한국기독교 역시 공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거의 상실했다는 것을 드러냈다. 공공신학은 이런 상황속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공적 언어로 다시 표현하고, 공적영역에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는 신학적 움직임”이다(장동민 2019:409).

이번 코로나 19 재난상황은 국가가 공공영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민들은 안전의 위협 앞에 기꺼이 자신들의 자유와 권한을 정부에 위임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위임된 권한은 재난상황이 진정된 후에도 쉽게 국민들에게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만일 공공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기존에 시민단체가 감당하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장악하게 된다면 정부가 잘못된 국가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과거 1 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 그리고 경제 대공황 이후 파시즘과 나찌즘,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체제가 유럽을 장악한 경우가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국가와 개인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 비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단체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시민사회 영역 안에 기독교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는 창조 세계와 모든 공적인 영역 안에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믿는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부름 받았다. 따라서 한국교회도 사역의 관심을 개인영혼이나 교회 울타리 내의 사역만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공공영역에까지 넓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관변단체가 되거나 어용 단체로 변질되는 경우를 보아왔다. 그래서야 시민단체가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비교적 이런 정치의 영역에서 한발 물러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려면 먼저 교회가 이념의 잣대가 아닌, 오직 성경적인 시각으로 균형잡힌 목소리로 조정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서서 꾸준히 섬기는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언젠가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의 공신력도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교회가 어떻게 기독교의 진리를 공적인 언어로 번역할 수 있을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의 일상과 공적 생활에 참여해야 할지 신학적인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환경에 대한 관심 회복

생태의 위기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복음주의권에서는 이 주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왔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선교의 범위를 창조세계의 회복으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원론과 종말론 중심으로 발달해 온 한국 복음주의 교회의 신학적 관심은 창조는 고사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주제를 받아들이는 것도 버거워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 개인의 삶이 환경이나 사회적 문제와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즉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에서 비롯된 인재였다는 자각은 개발과 성장, 그리고 대량소비의 생활양식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생태계 파괴의 시작이 자연을 착취와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서구의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자연을 인간의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이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삶의 양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세계교회협의회와 가톨릭은 이미 1970년대부터 이러한 '창조의 보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도 이러한 연구에 동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태 신학을 연구하는 데는 사물을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로 보고 그 속성을 분석하고 분류하는데 장점이 있는 서양인보다 세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사물의 관계와 맥락에 관심을 갖는 동양적 사고가 더 유리할 수 있다(리처드 리스벳 2004:105-106). 성경은 인간과 자연세계를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창세기는 인간의 죄악으로 피조 세계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역으로 피조 세계가 고통당하고 파괴된다면 인간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인간 사회와 자연 세계는 공존과 공생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며 우리는 우리 문명의 질주를 돌아보고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적극적으로 성경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찾고 신학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5) 4 차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의 대응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기까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전염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은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19 재난은 갑작스럽게 우리 사회를 비대면, 비접촉 사회로 몰아갔다. 그 결과 교회 역시 모여서 예배하는 대신 화상예배나 화상회의, 화상목회에 적응해야 했다. 사실 코로나 19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사회는 4 차산업혁명을 통해 빠르게 디지털시대로 진입하고 있었다. 다만 코로나 19 재난이 이러한 4 차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일상에 더 일찍 다가오게 한 것 뿐이다.

'4 차산업혁명'이란 용어는 세계경제포럼의 설립자겸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이는

기존의 정보통신(IT)혁명의 기반위에 디지털, 바이오, 오프라인 기술들이 다양하고도 새로운 형태로 융합되어 갑작스럽고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혁명을 일컫는다(Schwab 2016:6-7, 문상철 2017:9-10). 관련된 기술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공학,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나노기술 및 메타 물질, 블록체인, 빅데이터, 바이오 공학, 정밀 농업등이 있는데 이 기술들이 서로 융합되어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문상철 2017:40). 이 말은 4차산업혁명이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맞이할 신학적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가령 이번에 보편화된 온라인예배에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등을 활용해도 되는가? 가상현실이나 디지털 세계도 선교의 영역인가? 대면문화보다 디지털이나 SNS를 통한 소통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과학의 발달과 함께 계속 발생할 인공지능, 유전자 조작이나 복제등의 문제에 대해 어떤 신학적 대답을 할 것인가? 등등.

이러한 주제는 우리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에게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교회와 대화하며 스스로 이러한 주제에 대한 신학화 작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혁신의 종교이다. 라민싸네나 앤드류 월즈가 분석한대로 기독교는 항상 새로운 선교적 상황에 복음을 번역해 냄으로 생명력과 활력을 회복해온 종교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새로운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번역가능하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자 책임이 된다. 만일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을 선제적으로 신학화해 나간다면 글로벌교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코로나 19 재난이 한국교회에 제기하는 신학적 과제로 '교회의 선교적 본질 회복',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 '교회의 공공성 회복', '환경에 대한 관심

회복', 그리고 "4 차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에 대한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마 여기서 언급하지 못한 더 많은 주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창조적 성경읽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성령은 지금도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며 성경을 통해 현 상황을 조명해 주시고 계신다. 바라기는 현 위기가 한국교회가 새로운 성찰을 통해 한국적 신학을 계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토론질문>

1. 위에서 언급된 코로나 19 재난상황에서 야기된 신학적 주제외에 지금 한국교회가 숙고해야 할 신학적 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2. 19 재난이 향후 한국교회와 한국선교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아젠다들을 신학화하는 작업이 어떤 의미가 있을 지 논의해 보라.

<참고문헌>

- 레슬리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역 (서울:IVP, 2007)
-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 리처드 리스벳, 『생각의 지도』, 최인철 역 (서울:김영사, 2004)
- 변진석, "선교사와 신학적 성찰" 『선교연구 76』 (서울:한국선교훈련원, 2016)
- 마크 A. 놀, 『복음주의와 세계 기독교의 형성』 박세혁 역 (서울:IVP, 2015)
- 문상철, 『4 차 산업혁명과 선교혁신』 (서울: 한국선교연구원 kriM, 2017)
- 앨리스터 맥그래스,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박규태 역 (서울:국제제자 훈련원, 2009)
- 이문장, 앤드류 월즈 외 『기독교의 미래』, 이문장 역 (파주:청림출판, 2006)
- 장동민,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기독교』(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최준식,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사계절 출판사, 1997)
- 크레이그 밴 겔더, 『교회의 본질』, 최동규 역 (서울:국제제자훈련원, 2015)
- 폴 히버트, 『선교와 문화인류학』, 김동화, 이종도, 이현모, 정흥호 역 (서울:조이선교회 출판부, 2018)